

‘골프 여제’ 박인비 올림픽 출전 확정

최근 부상 호전 연습 돌입…세계 최강 전력 구축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던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박인비의 올림픽 출전 결정으로 한국 대표팀은 최강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기간 커디션 회복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박인비의 매니저먼트를 맡고 있는 갤럭시아이엠은 11일 ‘박인비는 이번 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인비의 올림픽 출전은 극적으로 결정됐다.

박인비는 지난 주 4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3위에 올라 있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확보한 상태지만 부상으로 인해 전날까지도 출전이 불투명했다.

국내에 머물며 재활과 연습을 하며 컨디션을 점검하던 박인비는 전날 소속사 등 관계자들과 오랜 논의 끝에 출전을 결심했다.

올림픽 출전을 놓고 막판까지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박인비는 대표팀 선수 명단이 결정되는 당일 소속사를 통해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올 시즌 히리 부상에 이은 왼 엄지 손가락 부상으로 제대로 투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박인비는 10개 대회에 출전에 그쳤다.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챔피언십 출전을 강행하며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했지만 이후 손가락 부상 악화로 약 한 달째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여자팀은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서 여자부 개인전 금·은·동메달까지 쟁이 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국 여자팀의 올림픽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럼에도 여전히 올림픽 출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박인비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US여자오픈 출전도 포기하며 부상 회복에 매진했다.

최근에는 부상이 상당히 호전돼 골프 클럽을 잡고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비는 출전을 확정하며 “올림픽 출전은 저의 오랜 꿈이자 목표이며”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는 늘 확고했지만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던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국가를 대표하는 일 아니만큼 부상 회복 경과를 두고 오랜 기간 깊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골프여제의 귀환으로 한국 여자 대표팀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인비를 비롯해 세계랭킹 5위 김세영(28·미래에셋), 6위 전인지(22·하이트진로) 8위 양희영(27·PNS) 등 10위권 이내에 4명이나 포진해 있다.

/김민근기자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젝트 제3기 선수 선발전

전라북도축구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베스트일레븐과 FC마리나에서 후원하는 우수선수 해외유학 장기 프로젝트 3기 선수 선발전이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선발전은 도내의 108명의 중학교 3학년 등록 선수 중 2개의 팀을 선발 구성해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2명은 브라질 FC 마리나팀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이들은 1년간 학비·면제 및 브라질 유소년리그 참가, 정규학교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라북도축구협회 유종희 전무이사는 “전라북도 출신의 축구 인재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창설 취지에 맞게 더 좋은 환경과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탁구 콤비 양하은·전지희 여성스포츠대상 MVP

여자탁구 복식 콤비인 전지희(24·포스코에너지)와 양하은(22·대한항공)이 2016 MBN 여성스포츠대상 6월 MVP에 선정됐다고 11일 종합편성채널 MBN이 밝혔다.

전지희·양하은은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2016 국제탁구 연맹(ITTF) 월드투어 슈퍼시리즈 코리아오픈 여자복식에서 중국의 리우쉬엔·당닝 조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선수는 다음 달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서효원(29·에스원)과 함께 단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전지희는 개인전에도 출전한다.

2012년 제정된 MBN 여성 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의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들의 발전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매월 한국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하며 12월 연말 시상식을 통해 대상 등 8개 부문 수상자를 시상한다.

/김민근 기자

LA 디저스 류현진 5선발로 후반기 시작

어깨 부상을 털고 640일만에 복귀한 류현진(29·LA 디저스)이 디저스의 5선발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디저스의 데일로버츠 감독은 11일(한국시간) “후반기 시작 후 첫 5경기에서 데니스 브랜던 매카시, 미에다 겐타, 스캇 카즈미어, 류현진 순서로 선발 등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츠 감독의 말대로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갈때마다 류현진은 21일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펼쳐지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지난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류현진은 4%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2볼넷 6실점을 기록하고 평균의 명예를 썼다. 5회에 들어선 후 구속이 뚝 떨어지는 후유증도 있었고 제구도 부상 이전처럼 예리하지는 못했다. 류현진이 복귀전 이후 원 어깨의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류현진은 12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김민근 기자

올림픽 유도 남자부 73kg급 안창립 12년 만에 금메달 노린다

한국 유도는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손꼽힌다.

한국 유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리우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4회 연속 하계올림픽 종합순위 1위권 진입이 목표다.

유도대표팀 서정복 총감독은 리우에서 최소 2개의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쉽지는 않다. 결립률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서 감독은 “일본은 까다로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선수만 이긴다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73kg급 안창립(23·수원시청)이 금메달에 급집중이다.

한국 유도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이원희 이후 이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있다.

안창립은 이 체급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노린다. 안창립은 제일교포 3세다. 그는 일본 유도 명문 쓰쿠비대학과 2학년이던 2013년 10월 전일본학생선수권대

회 73kg급에서 정상에 오르며 주목 받았다. 이후 일본 대표팀의 귀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안창립은 할아버지의 나라인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 2014년 2월 한국으로 건너와 용인대에 편입했다.

한달 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3위를 기록한 안창립은 3차 선발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과트너 자격으로 한국 유도대표팀에 뽑혔다. 이후 태극마크를 단 안창립은 2014 제주 그랑프리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5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2015 세계선수권대회 3위 등 출전하는 대회마다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2월에는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따라서 안창립에게 기대가 크다.

안창립은 일본 유도의 기술과 한국 유도의 체력이 합해지면서 73kg급 최강자로 거듭났다.

안창립은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 일본의 오노 쇼헤이를 넘어서야 한다. “최고 라이벌은 일본의 오노 쇼헤이다.”



보지 못했다. 상대전적은 4전4패다.

안창립은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 일본 선수에게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아직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다. 무엇보다 일본 선수에게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얼굴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
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